

경남도민 10명 중 7명 “민선 8기, 도정 운영 잘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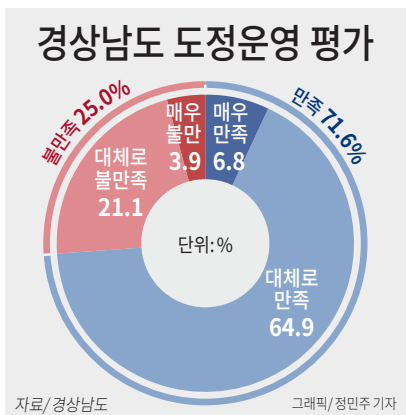
경남도, 도정 성과 인식조사
생활 여건 만족도 67% 기록
‘우주항공청 유치’ 높은 평가

민선 8기 경남도정이 3주년을 맞아
진행한 도민 인식 조사에서 71.6%의
높은 긍정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민선
8기 3주년 도정 성과 평가 도민인식조
사’를 진행한 결과, 도민 71.6%가 도
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 29일 밝혔다.

이는 도정 운영 평가 이래 최고치
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4.7%p 상승했
으며 부정 평가는 6.3%p 감소했다.

전반적인 생활 여건 만족도도
67.1%에 달했다. 두 항목 모두 모든



연령, 지역에서 60% 후반대 긍정 응
답을 기록해 부정 평가를 크게 웃돌
았다. 경남도민으로서 자긍심을 느
낀다는 응답도 65.8%로 높게 나타
났다.

생활 여건 만족 요인으로는 주거·
도시 환경(25.2%)과 보건·복지 및 의
료 서비스(19.4%)가 주요하게 꼽혔

다. 반면 불만족 이유로는 지역 경제
및 일자리 문제(43.6%), 교통·주차
문제(13.1%), 문화·여가시설 부족
(9.3%) 등이 지적됐다.

분야별 주요 성과 인식에서는 경
제·산업 분야에서 우주항공청 경남
유치(36.7%)가 가장 높은 평가를 받
았다.

이어 조선·원전·방산 등 주력 산
업 성장(22%), 역대 최고 고용률 달
성(10.9%), 남부권 관광 개발 사업
확정(7.4%), 3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7.1%), 농가소득 증가율 역대
최대(4.6%), 투자 유치 3년 연속 역
대 최대 실적 갱신(4.6%) 등이 뒤를
이었다.

도로·교통·균형 발전 분야에서는
마창대교·거가대교 통행료 할인
(23.7%)이 최고 평가를 받았다. 수서

행 SRT 신규 운행 및 KTX 증편
(19.9%), 창원 석동터널 개통 등 도로
망 구축 사업(19.1%), ‘경남패스’ 도
입 및 가입자 21만명 달성(19.1%) 등
도 주요 성과로 인정받았다.

복지·인구·문화 분야에서는 전국
최초 24시간 응급의료상황실 운영
(24.1%)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돌봄 지원 강화 등 통합돌봄 체계
구축(13.8%), 소방·병원 연계 응급헬
기 도입(12.6%), 가야고분군 세계유
산 등재(10.8%) 등의 성과도 주목받
았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경남도
민 1016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와 통신 3사 타기팅 조사를 병행해 진
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에서 ±3.1%p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안동시

안동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안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에 대응
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안동사랑상품권
1400억 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5년 총 발행액은 1900억 원으로 확
대되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상품권은 지류형 582억 원, 모바일형 1,
358억 원으로 구성되며, 매월 약 7만여 명의
시민이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기
존 20만 원이던 구매 한도는 지류형 30만 원,
모바일 40만 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부산시

‘부산시 스타소상공인’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2025년 부산
시 스타소상공인’ 10개 사를 선정했다.

시는 2022년부터 매년 성장 가능성이 큰
소상공인 10개 사를 선정해 ‘부산 대표 브랜
드’로 성장하도록 종합 지원해왔으며 이번
까지 포함해 총 40개 사를 발굴했다.

선정된 스타소상공인은 ▲그린리본 ▲농
업회사법인 리큐랩 ▲댄스팜코퍼레이션 ▲
더블헬스케어 ▲바비조아 ▲부산약콩밀면
▲양가손만두 ▲차에전 할매갈국수 ▲코스
마일 코퍼레이션 ▲태리제화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선정 업체를 대상으로
교류회와 협업 프로젝트 실행 자금을 지원한
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영천시, 귀농인 수 전국 1위

경북 영천시가 2024년 통계청 귀농통계에
서 전국 시·군 가운데 귀농인 수 1위를 차지
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시·군별 귀농인 규모를
조사해 발표하는데, 올해 영천에는 총 140명
의 귀농인이 새롭게 정착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전국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만의 맞춤형 정
책이 실제 정착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
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
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영천(경북)=김준한 기자

달성군

러시아어 ‘생활정보지’ 발간

달성군은 관내 거주 고려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어로 제작한 ‘생활정보지’를 발간·배
포했다.

이번 생활정보지는 고려인을 포함한 러시
아어권 주민들이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
됐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생활
관련 정보, 체류 안내 등 실생활에 유용한 내
용을 담고 있다.

정보지는 고려인 밀집 지역과 관련 기관
에 총 800부가 배포됐으며, 달성군청 홈페이지
에서도 전자과일 형태로 열람할 수 있다.

/대구=김준한 기자

경북도, 양자 사업 224억 투입

정부 글로벌파트너십 공모사업 선정
국비 223.8억 확보… 사업 본격 추진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
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양자과학기술
글로벌파트너십 선도대학 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223억 8000
만 원을 확보하고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포스텍, DGIST 등 국
내 대학이 미국 하버드대, MIT, 싱가포르
NUS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기관과 협력해 양자과학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선도기술 개발
및 양자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핵심 과제는 ‘크로스 플랫폼 기반
대규모 양자 얽힘 생성 및 조절 기술
개발’이다. 이는 초전도, 이온트랩,
중성원자, 광자 등 다양한 양자 기술
플랫폼의 장점을 융합해 강력하고 안
정적인 양자 얽힘을 구현하고, 이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이다. 양자컴
퓨터, 양자통신, 양자암호 등 차세대



경북도청 전경

핵심 산업 분야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기반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경북도와 포항
시, 포스텍은 양자연구 장비 확보, 원
천기술 개발, 국제공동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 연구
자 초빙, 국내외 연구자 파견, 국제 워
크숍 및 학회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세계적인
연구 흐름을 공유할 계획이다.

최혁준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은
“경쟁력 있는 양자기술 기반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지역 첨단산업의 성
장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부산시,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결성

박형준 시장 “연내 1호 투자기업 배출”

부산시는 총 551억원 규모의 ‘부산
미래산업 전환펀드 1호’ 모펀드를 성
공적으로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월 부산시가 미래산업 전환
펀드 조성 계획을 공식화한 이후 너
달 만에 이뤄졌다. 5대 시중은행이 출
자한 은행권 중견기업 전용펀드가
500억원, 시가 41억원, 한국산업은행
이 10억원으로 공동 출자했다.

이번 펀드는 올해를 시작으로 향후
9년간 매년 551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을 매칭해 매년
2500억원 이상, 총 2조3000억원 규모
의 자펀드를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산을 중심으로 울산·
경남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신산업
전환과 고도화를 위한 대규모 정책자
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시는 조선해양기
자재, 자동차부품
등부산의주력제조
업이 직면한 경쟁력
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친환경기술
을 융합한 첨단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
도록 실질적인 전환자금을 제공할 예
정이다.

또한 스마트팩토리 구축, 탄소저
감 기술 도입, 미래차 부품 전환 등 현
장 중심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방
침이다.

박형준시장(사진)은 “지역 기업의
높은 기대와 에너지를 바탕으로, 산
업구조 혁신을 선도할 ‘1호 투자기
업’을 연내 배출하고, 펀드의 성공적
안착을 통해 지역 산업 전반에 혁신의
물결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
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광주시민, 지난해 7.8만t 온실가스 감축

광주시, 14억 상당 인센티브 지급

광주시민이 지난해 총 7만8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
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지난해 에너지와 자동차
주행거리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
인 시민 10만3000여명에게 14억원 상
당의 탄소중립포인트제 특전(인센티
브)을 지급했다고 30일 밝혔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한 광주
시민이 감소한 온실가스는 30년생 소
나무 약 862만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인 총 7만8000t 규모이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시민 또는
중·소상공인이 전기, 수도, 가스 사용
량을 직전 2년 평균보다 5% 이상 절
감하거나 차량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
축률에 따라 연 최대 10만원의 특전을
지급하는 제도다.

에너지 분야 특전(인센티브)은 현
금, 그린카드 포인트, 기부 중 선택할
수 있고, 자동차 분야는 현금으로 지
급한다.

광주시는 전체 65만여 가구 중
56%에 달하는 37만여 가구가 탄소중
립포인트제(에너지)에 가입했다.

지난해 상반기 에너지를 절약해 온
실가스 발생을 줄인 5만3088 가구에
6억8300만원, 하반기에는 4만7762 가
구에 5억8200만원을 지급했다.

또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분야에서
는 1879명에 1억3500만원의 특전(인
센티브)을 제공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는연중
광주시 누리집과 가까운 자치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
으며,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포인트제
는 매년 2~4월 전용 누리집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포항시, 3일 ‘UN GIH S.I.W’ 개막

기후위기 시대 해법 모색

세계 기후 혁신 리더들이 산업도시
포항에 모여, 기후 위기 시대 산업 구
조의 지속가능한 전환과 도시 단위 기
후 행동의 해법을 모색한다.

포항시는 내달 3일부터 4일까지 라
한호텔에서 ‘유엔기후변화 글로벌혁신
허브(UN GIH) 시스템혁신워크
숍(Systemic Innovation Worksho
p, S.I.W.)’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과 혁신 기술 협력을
핵심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는
세계적 기후학자와 유엔 관계자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연사로는 영국 유니버시티칼
리지 런던(UCL)의 지구시스템과학

교수이자 ‘Climate Change: A Ver
y Short Introduction’의 저자인 마
크 마슬린(Mark Maslin)과, UN GI
H 프로젝트 총괄을 맡고 있는 마쌌바
티오예(Massamba Thioye)가 이를
을 올렸다.

포항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학술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기후 정책 전
환과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
는 실행 중심의 플랫폼을 마련할 방
침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워크숍은
기후과학과 정책, 기술이 하나로 만
나는 장”이라며 “세계적인 기후 혁신
가들과의 교류가 포항의 기후정책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경북)=김진곤 기자 jingon@